

정보사회와 투명성

이기호 / (사)한국여성정보인협회 이사장

키르치르와 미치르 남매는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찾으러 돌아 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말았다. 마지막에 “행복”이라는 나라에서도 파랑새를 발견하지 못하고 애태우고 있을 때 “행복”들은 모두 웃었다. 바로 옆에 두고 찾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항상 당신 곁에 있지요” 하며 “나는 건강의 행복입니다.”, “나는 맑은 공기의 행복입니다.”, “나는 봄의 행복입니다.”하며 각자 자기 소개를 했다. 이 이야기는 마리우스 메테를링크의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찾아다니는 동화에서 나온 이야기다.

21세기 지식 기반 정보사회를 눈앞에 두고도 아직도 정보화 사회가 무엇이냐고 물으며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365일 현금 인출 가능”이라는 선전 문구와 함께 사방에 설치해 놓은 현금 지급기를 이용해 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은행원이 창구에서 주판을 가지고 몇 번씩 계산을 해보고 손으로 통장에 기재하는 광경은 없어진 지 오래다. 주민등록 등본이나 호적등본이 필요할 때 어느 동사무소에서나 신청하여 받아볼 수 있는 현실이다. 현금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현금 지급기에서 찾아 쓸 수 있는 편리함과 빠른 일 처리로 인한 시간 절약을 가져도 주는 것 등이 이미 정보화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필요한 정보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기억 장치 속에 넣어놓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하는 작업 처리를 하는 것이 바로 정보사회의 한 단면이다.

세계 모든 나라가 다투어 새로운 천년을 대비하는 국가 전략을 내놓고 있다. 20세기를 주도했던 선진국들은 새로운 밀레니엄을 또다시 자국의 시대로 만들고 세계를 주도해 나가려는 계획을 짜고 있는가 하면, 20세기에 개발 도상국에 있던 나라들은 21세기에는 선진대열에 서기 위해 미래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연구를 하고 있기도 하다. 각국이 세계 제일이 되고자 한다는 것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가 경제를 튼튼히 하여 경제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의미로 짐작될 것이다. 국가 경제는 바로 개인의 삶과 부와 연관되는 것이다.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가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라가 부강하다고 해서, 개인이 잘 살고 행복해지는 것은 물론 아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편중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또다른 형태의 불행은 맞보게 될 것이다.

새로운 천년에는 지금까지의 생활 패턴과는 전혀 다른 양상들이 나타나고 정보 사회의 진수를

맛보는 사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에게 최대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고, 그래서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삶의 질이 높아지고 풍요롭다고 해서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행복하기 위한 조건 들 중의 한 부분임에는 틀림없다. 분명히 이전보다는 모든 삶의 여건이 좋아지고 여유가 생겼는데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다. 바로 상대적 행복감 때문이다. 나만의 행복에 젖어 있기에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인간환경이 허락치를 않는다. 불공평성에 대한 생각이 불행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다.

선진국 국민들은 불행을 노래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어찌 보면 무감각한 것 같이 보일 정도로 조용히 자기 생을 영위하는 사람이 많다. 그 이유가 자기 위치에 대한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고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본다. 내가 타고난 나만의 자질을 바르게 개발하고 정당하게 일하고 벌어서 합리적인 세금을 내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누가 나를 짓누르지도 않고, 나 또한 남을 알보거나 짓누르지도 않는다. 나 개인은 나로서 세상을 살아간다



는 지극히 인간다운 생각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의 삶을 편안하게 해 주기 위한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고 뒷받침되고 있다는 믿음 위에서의 일들이다.

우리 사회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정신적 방해 요인은 공평성 문제라고 본다. 부당하게 돈을 벌고 권리를 누리며 부당하게 사람을 취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사회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찾기 어렵다.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수입이 적는데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해고되어야 하는가?', '저 사람은 직업은 없지만 불로소득이 많은데 왜 평생 일한 나보다 사회 복지금을 더 받는가?' 등의 공평성에 대한 불신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다고 본다. 불공평은 요행을 바라는 마음과 필요 이상의 기대감을 갖게 한다. 불공평은 정확하고 명확하며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공정한 판단과 공평한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컴퓨터가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렇게 함으로써, 21세

기 정보사회는 사회가 투명해진다는 보장만 받으면 상대적 불행감은 감소하리라고 기대를 해도 좋을 것이다. 컴퓨터는 많은 양의 자료를 저장할 수 있고, 정확한 계산을 하고 속도가 빠르다는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진 기계이다. 이 세 가지 특성을 이용하면 경제의 편중으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의 불공평도 막을 수 있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불공정으로 인한 상대적 불행감에서 해방될 수 있다.

투명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국민의 대다수를 중산층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 이것이 참의미의 국력이라고 볼 수 있다. 투명성이 보장된 사회에서는 사기성 기업이 난무할 수 없다. 열심히 일하는 만큼 수입이 생기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이다.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문제이다. 이것이 바로 능력 위주의 사회로 가는 길이다. 수많은 양과 갖가지 조건을 가진 정보를 다룰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공정한 판단이 가능하다. 국가의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를 걱정하기 전에 우리 개인의 경우를 살펴보자. 정당하게 벌어서 합리적인 세금을 낸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억울하다는 생각을 버리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억울하게 당한다는 생각이 너무 많다. 또한 세금을 낸 만큼 내 주변이 좋아지고, 퇴직 후나 노후에는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안정된 사회를 이룩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국가가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세금 문제로, 세금을 공정하게 징수하고 공정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세금 행정은 재산의 세습도 막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 정책도 제대로 세울 수 있으며, 보상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경우가 생기는 등의 개인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정보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전 부처와 전 기관이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은 국가 경제의 기본이 되는 세금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다. 부동산 관련 정보, 금융에 관한 정보 등 세금을 제대로 계산해 낼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되는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야 한다. 자료 저장만이 아니라, 자료를 처리 분석해서 적용하고 활용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좋은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공평하게 운영이 안되면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없다. 법이 너무 많고 제도가 복잡하면 적용하는 데 힘이 들고, 사람의 머리모만 판단하게 될 경우 판단 능력의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것 역시 컴퓨터로 하여금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도록 지시를 해야 하고, 정말 기계가 하지 못하는 인간사에서 정황 참작이 필요한 마지막 의사 결정에만 인간의 두뇌가 이용되어지도록 하면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가 인간이 원하는 대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즉 소프트웨어 개발이 관건이 된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투명한 사회의 도래는 늦어질 것이다. 각종 소프트웨어의 개발 촉진으로 새로운 질서의 시대가 오기를 기대한다. 또한 공정성이 보장되는 투명한 사회만이 국민 행복을 가져다주는 지름길이라고 본다.